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

신 호 승 *

- I. 머리말
- II. 제주도의 봉수-연대-진 방어 체계
- III. 제주도 관방체계의 형성배경
- IV. 맺음말

〈국문초록〉

제주도는 동북아 국가들의 해상 교류에 있어 중간 경유지의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였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조선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보다 손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이 제주도를 거점으로 삼게 되면 일본에서 조선에 이르는 접근로가 부산근해에서 남해안과 서해안 전 해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서 제주는 조선의 관방체계상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제주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상 상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때문에 조선에서는 상륙이 예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진을 설치하여 병력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연대와 봉수를 통해 해상에서 침입하는 적을 감시하였다. 연대와 봉수를 통해 적의 위협이 가시화되면 진의 병력을 신속히 배치하는 형태로 방어 작전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통영의 삼도수군통제영과 같이 해양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보다는 수군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 관방 체계는 육상 병력만의 체계였다. 이러한 관방 체계로는 제주도의 해안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만약 적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안선에 상륙을 시도하면 육상 병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자

* 연세대학교 박사수료

칫 섬 내륙으로 침입한 적과 해상의 적에게 협공당하여 각개격파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수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방어 작전의 유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였다. 때문에 조선전기 제주도에서는 수군을 함께 운용하였다.

이렇게 조선전기 적극적으로 운용되던 수군은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사라져 18세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판옥선 등 수군을 운용하는 수전소는 조선후기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이르면 모두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원인에는 잦은 재해와 명청 교체기의 국제적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즉 조선정부는 방어 작전의 효율성 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제주도의 해상 방어 전력을 축소시켰다.

하지만 제주도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제주도 관방 체계상에서 해상 방어체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육상 방어체계가 필요하였다. 접근하는 이선을 원해에서부터 봉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였다. 그리고 근해에서는 연대를 통해 이선의 동향을 정확히 확인하여 진에 그 상황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에서는 방어가 필요한 지점에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대-봉수-진의 유기적인 운용체계가 필요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육상 중심의 관방체계가 자리잡았다.

주제어: 조선후기, 제주도, 관방체계, 연대(煙臺), 봉수(烽燧), 해상교역, 군사제도, 이형상, 탐라순력도

I. 머리말

한반도는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해양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해양 세력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해상 세력과 交流로부터 海禁까지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 등을 기반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일본 등과의 관계에 있어 해양은 일종의 국경이었다.¹⁾

1) 신명호, 「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인 정책 -『典客司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은 세종대 이후로 內洋을 중심으로 해양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해금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역은 3포로 제한하였다. 국가를 벗어난 사적인 교류는 금지하면서, 한일 간의 해양교류는 국가에 의해 독점되었다.²⁾ 이러한 해양 세력과의 관계는 역사적 기원을 통해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해양세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여말선초 왜구의 침구와 임진왜란 등은 해양 세력의 위협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조선은 海防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³⁾

제주도는 조선의 해방 체계상 중간 경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였다.⁴⁾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동북아 삼국이 교류를 위해 지나 다니는 해상 교통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요성은 제주도의 군사적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당시 조선은 제주도를 일본 등의 해양세력이 조선을 침구하는 경로 상에서 중요한 디딤돌로 보았다.⁵⁾

당시 일본에서 조선에 이르는 대표적인 경로는 대마도를 거쳐 부산에 이르는 길이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해상 전력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은 해로를 차단하는 형태로 일본의 위협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은 임진왜란 등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었고, 따라서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 이후에는 거제도 등에 일본군의 접근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봉수 등을 설치하고,⁶⁾ 접근이 용이한 부산 근해에 수영을 배치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호남을 거쳐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길목인 통영에 삼도수군

», 『해양문화학』 2, 2006, 4쪽.

2) 한임선, 신명호, 「조선후기 해양경계와 해금」, 『동북아문화연구』 21, 2009, 17쪽.

3) 오봉근,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1998, 323쪽.

4) 윤명철, 「제주도의 해양교류와 대외항로」, 『동국사학』 37, 2002, 216~218쪽.

5) 이형상, 『탐라순력도』(오창명,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발전연구원, 2014, 66쪽 재인용)

6) 신호승, 「정유재란 초기 조선수군의 작전수립과 활동」, 『역사와경계』 88, 2013, 134쪽.

통제영을 설치하여 유사시 수군 전력을 집중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

그러나 제주도가 일본 등 해상 세력의 거점으로 활용 될 경우 이러한 기존의 방어 전략은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전근대 선박으로는 원해를 가로질러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 바로 서해안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를 통하면 서해안에 직접 도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근대적 동력기관과 구조 등을 갖춘 선박이 운용되기 이전에는 해양 세력의 접근, 특히 일본의 접근 경로를 부산 근해로 한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제주도의 관방체계는 당시 조선이 취할 수 있는 해방 체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해방과 관련된 관방의 군사사적인 변화 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제주도의 관방체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제주도의 관방 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여기에 제주도의 지방군 체계를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이뤄져 어떻게 군대가 동원되고 이들이 진과 연대 같은 관방시설을 통해 해방에 임하였는지 연구가 진행되었다.⁸⁾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각각의 체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제주도의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설명하기 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관방시설 혹은 각각의 체계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관방체계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밀한 봉수-연대-진으로 이어지는 관방시설 체계와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수상 전력의 부재, 조선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병의 높은 비중 등이 상호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주도 관방체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관방 체계

7) 방상현, 「朝鮮後期 水軍統制使 研究 : 水軍統制營 設置背景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7, 1990, 88~92쪽.

8) 김명철, 「제주도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와 실태」, 『학예지』 8, 2001.

가 상호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조선후기 봉수, 연대, 진 체계의 운용 양상을 통해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관방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조선후기 관방체계가 구축된 배경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조선 후기 해방체계의 특징을 제주도의 관방체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주의 관방과 관련된 조선왕조실록과 18세기 초 이형상이 작성한 『탐라순력도』 등의 사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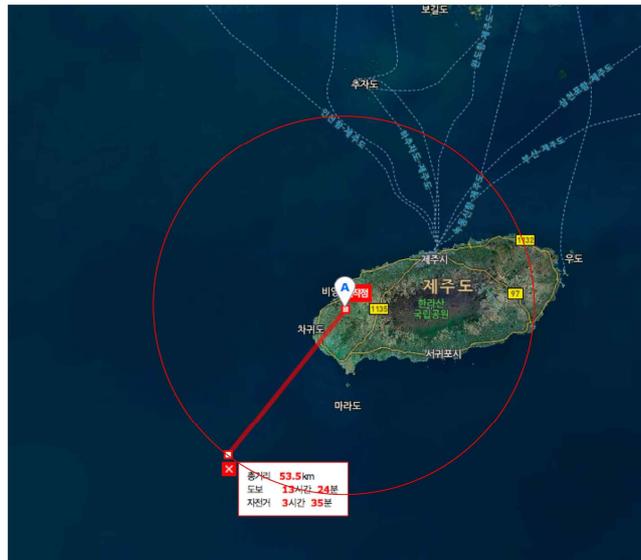
II. 제주도의 봉수-연대-진 방어 체계

1843년 5월 13일 제주도의 서쪽 근해에 異船이 나타났다. 이 이선을 처음 발견한 곳은 만조봉수와 배령연대였다.⁹⁾ 이선을 발견한 만조봉수와 배령연대에서는 이를 명월진에 보고하였다. 명월진의 만호 김석룡은 이선의 접근과 관련하여 인접 진에 접근을 알리고, 실시간대로 이선의 동향을 제주목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시설이 갖고 있는 체계상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를 주체별로 구분하면 봉수와 연대 그리고 진으로 나누어진다. 가장 먼저 봉수에서 이선을 발견하면서 제주의 관방체계는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이선을 발견한 만조봉수의 경우 해발고도 225m의 느지오름에 설치된 봉수였다. 이는 다른 봉수도 유사하였다. 제주도내 봉수가 설치된 곳은 주로 해안가 근처의 오름이며, 높이는 해발 약 100~200m에 분포되어 있다.¹⁰⁾ 즉 대부분의 봉수가 해발 100m이상, 산술평균 상으로는 약 150m 정도에 설치되었다.

9) 박용후, 「朝鮮朝 後期の 濟州島 防衛 및 異船 對處의 實際」, 『제주도연구』 4, 1987, 261쪽.

10) 김명철, 「조선시대 제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0, 80쪽.



<그림 1> 만조봉수의 관측거리¹¹⁾

오름에 설치된 봉수는 해발고도를 바탕으로 상당히 원거리까지 관측이 가능하였다.¹²⁾ 맑은 날씨를 기준으로 검토하면 만조봉수의 경우 관측이 가능한 거리는 약 53.5km¹³⁾였다. 물론 해상의 기상 따라 관측 범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해상의 기상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로 접근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측면에서 만조봉수의 관측 가능 거리는 관방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였다.

당시 만조봉수에는 별장 윤광일이 근무 중에 있었다. 봉수대에서 관측된 이선은 바로 봉화를 통해 인접 봉수대에 전달이 되었고, 9진과 함께 중국에는 3성에 연락이 되었다.¹⁴⁾ 만조봉수의 경우에는 인접해서 좌로는 당산봉수와 우로는 도내봉수가 있었다. 만조봉수에서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9진과 3성에서는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는 준

11) 지도와 거리는 네이버(Naver) 지도를 활용하였다.

12) 전영준, 「삼별초의 항과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2015, 210쪽.

13) 신호승, 「정유재란 초기 조선 수군의 전략 수립과 활동」, 『역사와경계』 88, 2013, 129쪽. 이를 토대로 적도~위도 30도~극점을 기준으로 만조봉수에서 관측가능한 거리는 약 53,484m, 53,514m, 53,574m이다. 평균 53.3km이다.

14) 박용후, 「朝鮮朝 後期の 濟州島 防衛 및 異船 對處의 實際」, 『제주도연구』 4, 1987, 261쪽.

비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봉수에서 전달된 정보는 매우 제한되었다.

봉수를 이용한 감시는 상당히 원거리에서부터 제주도에 접근하는 이선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우선 육안을 통한 해상 감시의 특성상 바다 위에 떠있는 이선과 제주도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상에서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주변 지형지물 등을 통해서 대략 짐작할 수 있었지만 비교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없는 원해에서는 그것이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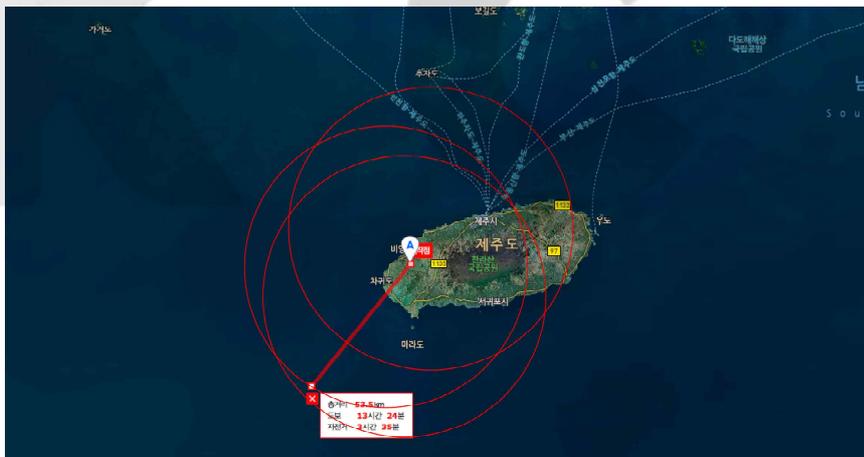
두 번째로 1개의 봉수가 감시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었다. 예를 들면 만조봉수에서 감시해야 하는 범위는 산술적으로 약 3,925km²에 이르렀다. 이러한 넓이는 현재 서울의 면적 605km² 보다 6.5배에 이른다. 접근하는 이선이 수십 척 이상으로 이뤄진 대선단인 경우에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지만, 소수의 선박 혹은 1척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아무리 숙련된 감시병이라도 이렇게 넓은 구역을 완벽하게 감시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만약 이선을 늦게 발견하면 자칫 제주도 방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상비군을 전 해안에 배치하여 항시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비로소 병력을 동원하여 투입하는 체계의 특성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제때 병력을 방어배치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봉수에서 감시 가능한 약 50km 거리의 감시 범위에서는 당시 판옥선 등을 기준으로 해도 5시간이면 제주도 해안에 도달할 수 있었다.¹⁵⁾ 이보다 빠른 배일 경우 제주도 해안에 도달하기까지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즉 미처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이전에 이선이 해안에 도달해서 이선에 탑승한 사람들이 상륙할 수가 있었다.

이처럼 봉수만으로는 제주도 해안에 접근하는 이선을 완전히 파

15) 판옥선의 속도를 약 6~7노트로 추산하였다. 판옥선은 통상 조운선의 선체에 전투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개조를 통해 제작하였다. 따라서 판옥선은 조운선의 선속과 비슷하였다. 복원된 조운선의 선속은 최대 약 14.4km/h였다.(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조운선』,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2012, 72쪽) 따라서 판옥선의 선속 역시 약 14.4km/h로 추산하였다.

약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봉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필요로 하였다. 우선 봉수의 배치 밀도를 높여서 보완할 수 있었다. 만조봉수의 경우에는 인접해서 좌로는 당산봉수와 우로는 도내봉수가 있었다. 이들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각각 10.9km와 6.4km였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봉수는 감시구역이 상당부분 중복되었다. 예를 들면 만조봉수의 경우에는 서남쪽에 위치한 당산봉수와 감시구역이 중복되는 비중은 전체 면적중 약 65%에 이르렀다. 이렇게 감시 구역을 중복하면 봉수에서 이선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실제 제주도에서 봉수간 거리는 거의 대부분이 10km미만이였다.¹⁶⁾ 즉 <그림 2>에서 보여지듯 만주봉수에서 담당하고 있는 감시구역은 거의 대부분이 다시 당산봉수와 도내봉수에서 중복해서 감시되었다.



<그림 2> 봉수간 감시구역¹⁷⁾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감시의 취약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16) 봉수간의 간격이 10km가 넘는 구간은 만조봉수와 당산봉수, 구산봉수와 호산봉수가 11km이며, 그리고 모슬봉수와 당산봉수가 14.5km였다.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읍성, 진성과 봉수, 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0, 78~80쪽) 이러한 경우에도 <그림 2>에서처럼 감시구역의 상당부분이 중복되었다.

17) 지도와 거리는 네이버(Naver) 지도를 활용하였다.

는 없었다. 해상에서 30~40km 떨어진 선박을 단순히 시력만을 이용하여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론상 해발 100m이상의 고도에서 약 53km 전방까지 볼 수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 범위였다. 여러 개의 봉수에서 감시구역을 중복해도 감시구역 자체가 너무 넓었다. 이는 결국 방어체계상 상당한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봉수간 간격을 좁혀 밀도를 높이는 횡적인 체계에 더해서 종적인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즉, 해안에 인접해서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인접한 해안을 감시하는 방법이었다. 봉수의 감시구역 밀도를 안으로 중첩해서 높이는 방식이었다. 원거리에서 의심 선박을 발견하면 이러한 정보를 해안에 인접한 연대가 이어받아 계속 감시하거나 혹은 봉수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선을 해안선을 따라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연대에서 동시에 감시하는 형태였다.

위의 사례에서도 만조봉수와 함께 배령연대가 동시에 이선을 발견하여 명월진에 보고하였다. 배령연대는 해발고도 4m에 연대 자체의 높이까지 포함하여 약 8m의 고도에서 해안을 감시하였다. 배령연대에서 해상으로 식별이 가능한 관측거리는 약 10km이다. 제주도 해안에 설치된 대부분의 연대는 해안과 인접해서 분포되어 있다.¹⁸⁾ 즉 대부분의 연대가 해발고도가 수 미터의 범위안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봉수와 연대는 상호 종적으로 중첩해서 해상을 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중첩해서 설치되어 있는 연대는 단순히 봉수의 감시 밀도를 높이는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연대는 여기에 추가로 이선의 추적이라는 역할이 추가되었다. 당시 배령연대에는 별장 윤종연이 근무하고 있었다. 별장 윤종연은 이선을 발견하자 바로 명월진과 인접 연대 그리고 봉수대에 이러한 상황

18)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읍성, 진성과 봉수, 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0, 62~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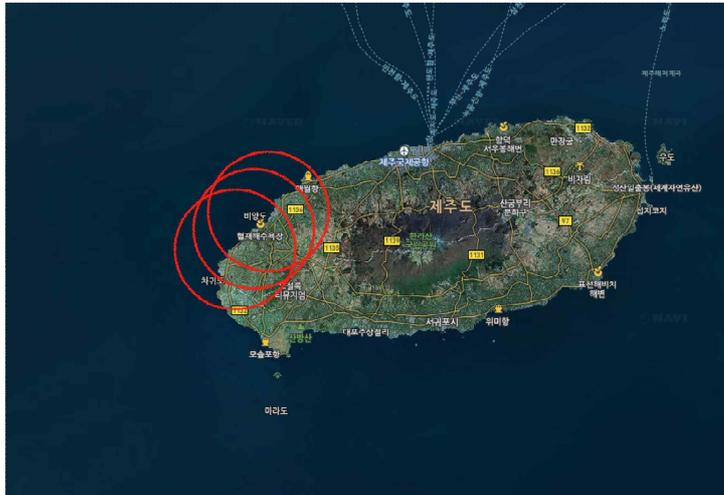
을 전달하였다. 전달된 정보를 토대로 명월진에서는 제주목에 이선의 접근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명월진의 만호는 배령연대로부터 “당일 미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선 한 척이 서쪽 바다로부터 갑자기 나타났다.”¹⁹⁾라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병력을 출발시키지는 않았다. 명월진의 만호가 병력을 출발시킨 것은 최초 보고가 있는 지 대략 한 시진이 지난후인 申時에 이선이 해안으로 접근중이라는 배령연대의 추가 보고를 접한 이후였다.²⁰⁾ 배령연대에서 관측 가능한 거리는 <그림 3>에서와 같다. 해안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부터 관측이 가능하였다. 배령연대의 申時 보고 이후에 명월진 만호 김석룡은 명월진에 속한 병력을 이끌고 이선이 접근중인 배령포로 나아갔다. 즉, 이선의 발견과는 별개로 좀더 접근한 상태를 기준으로 진에 소속된 방어 병력을 해안에 배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출동한 명월진 만호 김석룡은 배령포로부터 2마장 떨어진 곳에 정박 중인 이선을 발견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진을 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보고는 당일 亥時에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월진의 만호가 이선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견과 접근에 대한 대응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시에 처음 이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인접 진에 연락을 하고, 발견한 만조봉수와 배령연대에는 이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만 하였다. 해안 방어를 위해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대응은 없었다. 그러나 신시의 배령연대 보고를 접하고 이선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배령포에 좀 더 접근한 것을 확인하자, 바로 병력을 보내 배령포를 중심으로 해안을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을 배치하였다.

19) 박용후, 「朝鮮朝 後期の 濟州島 防衛 및 異船 對處의 實際」, 『제주도연구』 4, 1987, 261쪽.

20) 박용후, 「朝鮮朝 後期の 濟州島 防衛 및 異船 對處의 實際」, 『제주도연구』 4, 1987, 261~262쪽.



<그림 3> 배령연대 및 주변 연대 배치 및 감시구역²¹⁾

이러한 단계별 대응은 방어 정면이 넓은 해안선 방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선이 원해에 있을 때 선불리 병력을 해안에 배치하면 이선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기만을 하였을 때 이미 해안에 분산되어 배치된 병력을 이선을 따라 이동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육상 병력이 이선을 따라 해안선을 이동할 경우에는 막상 이선이 해안에 접근하여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였을 때 체력이 소진되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따라서 만호 김석룡은 명월진의 병력을 선불리 해안에 배치할 수 없었다. 이선의 동태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진의 병력을 예비부대로 삼아 진 등에 집결한 상태에서 이선의 동향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신시 이후에 배령연대로부터 이선이 계속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만호 김석룡은 곧 병력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제주도의 關防은 이선이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이전에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륙 예상 지점에 병력을 사전에 배치하여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했다. 때문에

21) 지도와 거리는 네이버(Naver) 지도를 활용하였다. 배령연대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위치한 연대에서 관측 가능한 범위를 원의 형태로 표시하였다.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이선이 해안으로 접근하는 시간보다 적어야 했다. 명월진에서 배령연대까지는 직선거리로 3.4Km정도 떨어져 있다. 일반적인 도보 속도인 시속 약 4Km 정도를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하여 좀 더 빠르게 이동하였다면 1시간미만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즉 명월진에서 배령연대까지 병력이 이동하여 이선의 상륙을 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염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선이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지점이 명월진 만호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반적인 배의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배령연대의 관측 가능거리인 약 10Km 내외에서 발견 직후에 이선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한 후 명월진의 병력을 배령포 일대에 배치한 것이다. 즉 연대는 단순히 근해 감시뿐만 아니라 이선 등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최종적으로는 진의 예비부대를 방어진역에 배치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안선에는 해상에서 침입하는 위협에 대비하여 연대와 같은 감시수단이 조밀하게 배치되었다. 연대는 제주도 전체 특히 해안선에 평균 약 4.6km의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이것을 해안선에 적용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제주도 해안의 연대 배치와 감시구역²²⁾

22) 지도는 google map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연대는 좌우측에 각 2개씩 총 4개의 연대 감시 구역과 중복된다. 바로 인접한 연대의 감시구역은 약 60% 이상까지 중복해서 감시할 수 있다. 이처럼 연대별로 중복해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해상에 있는 이선의 움직임을 실시간대로 추적이 가능하였다. 당시 명월진 만호의 보고와 같이 배령연대에서 어선이 발견되면 그 인접한 대포연대와 마두연대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60%에 이르게 된다. 만약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즉시 이선의 이동 상황은 진으로 보고가 되고 진에서는 이에 맞춰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특히 <그림 4>에서 보여지 듯 제주도 전 해안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촌락, 포구 등에 따라 그 밀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해안에 빈틈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연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감시체계를 구축한 것은 해안선 방어라는 구조적 특징 때문이었다. 해안은 상륙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은폐, 엄폐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방어의 이점을 방자에게 제공하였다. 때문에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상륙을 거부하여 침입에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제주도의 해안선 전체 길이는 250Km에 이른다.²³⁾ 이는 현재 한반도에서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 전체 길이보다 길다.²⁴⁾ 이를 3성 9진의 체계에 적용하면 각 성에서 담당할 구역은 평균 약 83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담당해야 한다. 9진의 경우에는 각 진이 담당해야 하는 해안선의 길이가 약 28km에 이른다.

23) 이 측정결과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측정된 결과이다. 2005년 국립해양조사원의 재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해안선의 길이는 419km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방파제 등을 포함한 인공해안선 길이까지 포함한 결과이다. 전체 해안선 길이 중 자연 해안선은 250.2km이다.(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051-400-4263, 2012년 해안선조사 용역결과)

24) 군사분계선의 전체길이는 통상 155마일 즉 249km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238km이다.(김창환, 「DMZ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권4호, 2007)

지금의 왜변(倭變)은 우연히 변경을 침범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선(戰船)을 넉넉히 준비하여 대거 침입했습니다. 고평손(高風孫)이 전한 대로 사을화동(沙乙火同)의 소행이란 것이 이미 빈 말이 아닙니다. 한 번 교전하고서 선박을 불태우고 장수를 죽였으니 곧바로 침범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지체하면서 진격도 후퇴도 안기 때문에 그 실정을 가늠하지 못할 듯하지만 어찌 심원(深遠)하여 알기 어려운 계책이야 있겠습니까. 전선을 나누어 정박시켜 의심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측이 한 곳에 병력을 집중토록 한 다음 가만히 다른 변경을 치려는 것이 하나요, 원도(遠島)로 물러나 숨었다가 본처(本處)에서 원병을 계속 보내는 것을 기다려 일시에 거사하며 멀리 떨어진 변경에 출몰하면서 진보(鎭堡)의 형세를 살펴 허술한 틈을 타 갑자기 공격하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²⁵⁾

이처럼 침입하는 적이 聲東擊西 등의 방법으로 제주도 해안의 어느 점에서 상륙할 것처럼 欺瞞하다가 해상 이동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경우 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83km, 진을 기준으로 한다면 28km까지 배를 따라 육상병력이 이동해야 했다. 육상 병력이 해상에서 4~6노트(시속 7~11km)로 배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설사 육상에서 방어하는 병력이 수상의 배와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체력 소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해상 침입세력이 주공과 조공으로 전력을 나누어 우선 조공으로 상륙을 시도하면 진 등의 육상 방어부대는 조공에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적 주력이 상륙을 시도하면 이에 대비하기 어려웠다.²⁶⁾

25)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3월 2일.

26) 명종대 제주목사 남치근의 치계에서도 “적선(賊船)이 밤낮 없이 연락부절로 횡행하고 있으니 적의 계획을 짐작하기 어렵고 작적(作賊)할까 염려”된다고 보고하고 이에 대해 전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무기를 보강해달라고 요청하였다.(『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6월 8일) 이외에도 해방과 관련해서 이러한 침입 양상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조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선조실록』 21권, 20년 3월 2일)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에 균등하게 병력을 배치해야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방어 병력을 필요로 하였다.²⁷⁾ 예를들면 명월진의 경우 전체 병력이 약 300~500여 명이 었다.²⁸⁾ 500여 명으로 계산해도 1km당 약 18명의 인원만을 배치할 수 있었다. 결국 전체 해안을 소수의 인원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인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봉수-연대-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관방체계는 이러한 군사적 상황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었다. 봉수-연대의 감시체계를 통해 절약된 병력은 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진에 집중된 병력은 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선의 움직임에 맞춰 대규모로 집중해서 운용 될 수 있었다.

이처럼 각 관방체제의 대응 순서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방어체계를 살펴보면 봉수-연대-진의 체계를 통해 제주의 관방체계는 유기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관방체계는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야기되는 육지의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과 물자 등을 통해서 250km에 이르는 제주도의 해안선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이것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해안 전반에 걸쳐 적용된 방법이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방어체계는 일견 매우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상과 육상

27)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종때부터는 제주 지역에 향시를 설치하여 지역을 방호할 수 있는 무관의 양성과 선발을 건의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7월 10일)

28)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서는 성정군이 412명으로 되어있다. 18세기 중후반의 『증보탐라지』에서는 성정군 145명, 치총 4명, 만호 1인, 양방군 69명, 대변군관 30인, 진무 14명, 포수 12명, 궁인 13명, 시인 14명으로 총 인원은 302명이다.(오창명,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4, 411~412쪽) 이원조가 작성한 탐라지초본에서는 만호 1원, 치총 4인, 진리 20명, 방군 317명으로 되어 있다.(이원조, 『탐라지초본(상)』, 제주교육박물관, 2008, 157쪽)

29) 한임선, 신명호, 「조선후기 해양경계(海洋境界)와 해금(海禁)」, 『동북아 문화연구』 21, 2009, 10~13쪽.

에서 통합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관방 체계는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수상방어체계를 위한 수전소 등을 폐지하고, 육상방어체계 중심의 봉수와 연대를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³⁰⁾ 다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제주도 관방체계의 형성배경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는 봉수-연대-진을 주축으로 한 육방 중심의 관방체계를 정립하였다. 250km에 이르는 해안선에 봉수, 연대, 진을 유기적으로 설치하여 異船의 접근을 감시하고, 침입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봉수를 통한 원해 감시 그리고 연대에서 근접 감시와 대응을 하였다. 이런 감시체계를 바탕으로 진의 병력을 예비부대 형태로 운용하여 소수의 육상 전력이지만 넓은 제주의 해안선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체계는 지극히 수세적인 대응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선의 침입양상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이를테면 聲東擊西 등의 작전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때문에 조선초기부터 다른 형태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다.

봉화와 척후하고 망보는 것은 주의 동쪽 금녕에서 주의 서쪽 판포까지 10처이웁고, 대정현 서쪽 차귀에서 동쪽 거옥까지 5초이며, 정의현 서쪽에서 북쪽 지말산까지 7처 이온데, 봉화가 있는 곳마다 5인씩 나누어 정하였고, 또 연대를 쌓았는데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척입니다. 망보는 사람에게 병기와 기, 각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여, 적본이 있사오면 봉화를 들고 각을 불어서 돌려가며 서로 통보하게 하고, 도적이 만약 상륙해오면 육군으로 공격하게 하며, 또 수군으

30) 김명철, 「제주도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와 실태」, 『학예지』 8, 2001, 416쪽.

로 협공하여 임기해서 형세를 보아 도적을 쫓아 잡는 것이 실로 양책이 될까하와, 공사의 적은 배 5, 6척으로 1대를 편성하고, 매 1척에 노젓는 병졸 4인과 샷대질하는 사공 1인과 사관 2인을 두었고, 또 싸움을 감독하는 자를 두어서 금고, 기각, 화통, 화포로 싸움을 돕게 하였습니다.³¹⁾

이처럼 육상 병력을 통한 대비와 함께 수군을 통해 협공하는 것이 제주도 관방의 良策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 관방체계는 침입하는 해상 세력의 규모가 확대되면 분산되어 있는 수군전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종때 수군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삼군으로 통합되었다.³²⁾ 이와 함께 왜적 등의 침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김녕과 명월 그리고 서귀 방호소 등의 상륙이 용이한 요해처를 중심으로 성을 쌓아 대비하도록 하였다.³³⁾ 문종대에 이르면 수군을 좀더 보강하여 집중적으로 운용할 것을 건의하였다.³⁴⁾ 이러한 경향은 연산군때에도 계속 강화되었다.³⁵⁾ 즉 육상 전력과 함께 수상 전력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실제로 명종대는 대규모 왜적이 제주도에 침범하고자 제주도 앞 바다에 정박해 있다는 제주목사 김수문의 치계가 있었다. 조선 정부는 이에 대해 수군을 통한 협공이 주된 방법으로 논의되었다.³⁶⁾ 이처럼 제주도의 관방 체계는 봉화-연대-진의 육상 방어체계에 수군을 포함한 능동적인 관방체계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방체계는 현종대에 이르러 크게 변화하였다.

31)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8일.

32)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19일;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18일.

33)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10일;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5월 28일.

34) 『문종실록』 3권, 문종 1년 9월 28일.

35)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 9년 12월 25일.

36) 『명종실록』 18권, 10년 6월 28일; 『명종실록』 19권, 10년 7월 2일.

본주에 전선(戰船)이 있는데 그 폐단이 말도 못합니다. 제주의 바다는 타지역의 바다와 달라 밀물 썰물이 없고 파도가 항상 하늘에 닿고 있는데 어떻게 전선을 쓰겠습니까. 더구나 적의 배가 왔을 때 적선이 만약 순풍이면 전선은 역풍을 만나게 되고 우리 쪽이 순풍일 때는 적은 물론 올 수가 없어 전선은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번이 만들고 있어 결국은 썩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땅히 변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³⁷⁾

현종은 제주도에서 전선을 이용한 능동적인 방어에 대해서 비변사에 논의를 맡겼고, 비변사에서도 제주도에서 전선 사용의 실용적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제주도의 경제적 상황 등을 토대로 하였다. 즉 전근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재해 등과 맞물려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³⁸⁾

조선후기 제주 지역은 지속적인 자연재해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서 제주 자체의 군수 보급 능력으로는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수군 전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제주 지역은 그 지리적 특성상 군역과 같은 역에 대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육지로부터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자연재해는 관방을 위한 병력과 물자 등의 보충과 보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실제 조선후기 제주도에 이상기후가 나타났던 기록을 살펴보면, 강풍과 호우,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가 연이어 발생하여 흉작과 폐작 등으로 이어졌다. 즉 태풍이 발생하면 이어 강풍과 호우로 인한 풍해와 수해가 발생하며 아울러 가뭄까지 연이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7세기에 급증하였다.³⁹⁾ 이러한 자연재해는 기아 등으로 이어져 군역의 근간을 이루는 인구의 급감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씨앗으로 사용할 종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끼리 잡아먹을 기우까지 야기되었다.⁴⁰⁾ 이러한

37) 『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3월 26일.

38)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 11월 10일.

39) 진관훈,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빈곤과 구빈활동」, 『탐라문화』 41, 2012, 339~340쪽.

상황에서 기존의 대규모 수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제주도는 원해에 떨어진 해도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육지에서 보급물자 혹은 병력을 지원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았다.⁴¹⁾ 제주에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육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제주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한 해로를 총 3개 경로로 명시하고 있다. 각각의 해로는 나주, 해진, 강진이었다.⁴²⁾ 여기서 각각의 해로별로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주에서 7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제주에서 어떤 지원을 요청하여 봉화를 통해 육지에 적시에 그 상황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육지의 병력이 제주에 도달하기까지는 최소 3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555년(명종 10년)에 제주지역에 대규모 왜적이 침입하였다는 김수문의 치계에 육지에서 원군이 지원되기까지 대략 10일 이상이 소요되었다.⁴³⁾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2주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나 있는 3주에 비해 상당히 앞당겨진 결과였지만, 왜적의 침입에 10일 이상 홀로 방어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제주도에 침입하는 적이 대규모일 경우에 제주도 자체의 수군으로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결국 현종대 이후 전선을 이용한 관방 전략의 폐지에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이것은 당시 다른 지역에서는 선박을 확충하여 수군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⁴⁴⁾

이런 이유 이외에도 제주도의 전선 유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당시 중국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던 청나라에서는 명나라 북

40)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월 30일.

41) 『중종실록』 12권, 5년 9월 19일.

42)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

43)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5일.

44) 김주식, 「朝鮮後期 海防史的 視覺에서 본 馬山の 戰略的 位相」, 『가라 문화』 16, 2002, 70쪽.

원세력의 주된 근거인 대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천계령을 내려 대만 인근 해안지역의 주민을 내륙으로 소개하였다.⁴⁵⁾ 만약 조선의 선박이 표류하여 천계령이 내려진 지역에 표박하게 되면 자칫 조선이 명나라 복원 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다.⁴⁶⁾ 그런데 제주의 선박이 태풍 등으로 표류하게 되면 주로 표류하는 지역이 중국의 복건성 등이었다.⁴⁷⁾ 복건성은 청나라에서 천계령을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었다.⁴⁸⁾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그 표류한 선박이 戰船일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海船의 이동까지도 청나라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⁴⁹⁾ 이로 인해서 역풍에 강한 거북선 등을 중심으로 제주의 전선을 개조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기도 하였다.⁵⁰⁾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제주의 관방 대책에 있어 해상 방어와 같은 능동적인 방어체계보다는 청에게 빌미를 전혀 주지 않는 수세적인 육상 방어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제주지역의 관방체계는 육상 전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18세기에 이르게 되면 제주지역의 수전소는 전부 폐지되고, 봉수-연대-진의 육상 전력만을 토대로 한 관방체계로 정립이 되었다.⁵¹⁾

제주도 관방체계에서 중요한 축이었던 전선을 이용한 해상 방어 체계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육상 방어체계는 더욱 정교해졌다. 침입한 적을 감시하는 수준의 연대가 이전의 감시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이로써 연대는 제주도 관방체계에서 해상

45) 원정식, 「淸初 福建社會와 遷界令 實施」, 『동양사학연구』 81, 2003, 56~57쪽.

46) 『현종개수실록』 26권, 현종 13년 12월 5일.

47)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3월 29일.

48) 원정식, 「淸初 福建社會와 遷界令 實施」, 『동양사학연구』 81, 2003, 56쪽.

49) 『숙종실록』 1권, 숙종 즉위년 11월 20일.

50)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월 24일.

51) 김명철, 「제주도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와 실태」, 『학예지』 8, 2001, 416쪽.

방어체계의 비중을 일정부분에서는 대신할 수 있었다. 특히 수전소가 폐지되고 해상 방어체계의 비중이 줄어들어 따라 연대의 비중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해방과 관련된 전략상 제주도의 가장 큰 중요성은 만일 왜적이 제주도를 점령한 후 이를 거점으로 남해안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다.⁵²⁾ 이러한 상황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공격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논의되었다.⁵³⁾ 즉 제주도의 관방 자체보다는 제주도가 왜적 등의 거점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점이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 자체의 관방을 위해서 해상에서 침입하는 세력이 제주 자체에 상륙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보다는 제주도가 완전히 점령되는 것을 막는 것에 전략 목표가 맞춰졌다. 따라서 거점 방어 등이 용이한 육상 전력이 제주도 방어의 핵심전력이 되었다.

이것은 제주 지역의 육상 병력 편제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조선전기 제주목의 경우 2,066명이 편성되어 馬軍이 843명, 步軍이 1,233명이었다. 봉화는 9개소였다.⁵⁴⁾ 정의현의 경우 620명이 편성되어 마군이 376명, 보군이 254명이었다. 봉화는 5개소였다.⁵⁵⁾ 대정현의 경우 670명이 편성되어 마군이 202명, 보군이 468명이었다. 봉화는 4개소였다.⁵⁶⁾ 전체 규모는 3,356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인조대에 이르러 4,164명으로 늘었다. 조선후기 이형상이 목사로 있던 당시에는 성정군만 4,018명에 이르게 된다.⁵⁷⁾ 즉 육상 방어 병력중 거점 방어를 위한 병력이 대폭 증가하였다.

52) 『선조실록』 56권, 27년 10월 10일.

53) 『선조실록』 56권, 27년 10월 10일 ; 『선조실록』 71권, 29년 1월 17일 ; 『선조실록』 83권, 29년 12월 16일 ; 『선조실록』 83권, 29년 12월 23일 ; 『선조실록』 89권, 30년 6월 14일.

54)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55)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정의현’.

56)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

57) 이형상, 『탐라순력도』(오창명,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발전연구원, 2014 참조)

그리고 이러한 거점 방어 병력의 증가와 함께 육상 병력의 기동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대규모 마군은 이러한 변화를 기동 전력으로서 뒷받침하였다. 제주도는 조선시대에 대규모 목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戰馬의 공급이 용이하였다. 이러한 전략 변화와 전마 공급은 제주도 육상 병력의 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기병과 보병의 비율이 제주도가 행정구역상 포함된 전라도의 여타 진영에 비해서 2배 였다. 제주도의 속오군중 마군의 규모는 10哨에 이르렀다. 이것은 순천진영 5초에 비해서는 2배 였다. 오히려 속오군의 숫자는 38초로서 순천진영에 비해서 2초가 적었다.⁵⁸⁾ 결과적으로 속오군 대비 마군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편제 구조는 제주도의 방어체계가 기본적으로는 거점 방어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해상 방어의 기동력과 같은 특징적인 양상을 말이라는 기동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보병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선박의 기동성을 마군을 통해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기병이라는 전술적 운용수단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해상 침입 세력이 선박이동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대규모의 기병을 운용하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상륙시에도 보병위주의 병종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군사적 특징은 제주도의 조선군이 기병을 적절하게 운용할 경우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적보다 우월한 기마 전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상륙한 적에 대해서 돌격, 추격, 우회 기동과 같은 기마 전력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⁵⁹⁾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는 기존의 해상과 육상을 결합한 능

58)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 운용과 영장제」, 『동서사학』 6·7, 2000, 131쪽.

59) 이흥두, 「한국 기병의 무기와 기병전술」, 『歷史와實學』 53, 2014, 106~107쪽. 명종때 왜의 대규모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도 돌격과 같은 전투 형태를 결정적 전투 형태로 언급하는 것은 기병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6일)

동적인 관방 체계에서 육상 중심의 수세적인 관방 체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배경에는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과 명칭 교체기의 국제관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것은 제주도의 경제적 환경과 결합되어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IV. 맺음말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는 조선과 해양세력 즉 일본에게 모두 중요하였다. 제주도를 일본이 거점으로 삼게 되면 기존의 일본에서 조선에 이르는 접근로는 부산근해에서 남해안과 서해안 전 해역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도 조선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손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서 제주를 조선의 관방체계상 반드시 확보를 해야하는 지역이었다. 특히 제주도는 그 규모와 자원으로 인해서 해양세력이 거점으로 삼게 되면 조선 침략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주도를 확보해야했다.

제주도는 남해안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해안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여기서 제주도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만약 교두보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해상으로 驅逐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상륙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특히 해상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과정에서는 해안지형의 특성상 침입하는 적이 제대로 된 방어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적이 상륙하는 과정에서 공격하면 손쉽게 격퇴할 수 있었다. 제주도의 관방시설 중 일부는 우물의 부재와 같은 입지적 조건은 부적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륙이 용이한 지점에 진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은 상륙 등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상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포구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적이 어디에 상륙할지 모른다는 점이였다. 제주도 해안선의 전체 길이는 약 253km이다. 이것은 현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DMZ의 길이보다 길었다.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는 전체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렇다고 병력을 해안선 전반에 걸쳐 길게 늘어놓는다고 해결될 문제 역시 아니었다. 만약 적의 출현만으로 해안에 병력을 배치하면 이미 방어 배치된 병력은 적의 상륙이 확인되었을 때 해당지역으로 방어배치를 전환시키기 어려웠다. 때문에 공격하는 해양 세력의 입장에서는 선박의 기동성을 이용하여 여러 곳을 기만하면서 한 지점에 전력을 집중하여 상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륙이 예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진을 설치하여 병력을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된 병력을 연대와 봉수의 감시체계를 통해서 적의 위협이 가시화 되었을 때 신속히 투입하는 형태로 작전이 수립되었다. 때문에 제주도의 군사제도는 진에 상주하는 보병 병력과 함께 마군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해상에서 선박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적을 보병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마군과 같은 신속한 기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제주도내에는 다수의 목장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군의 확충이 용이하여 이러한 전력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육상 중심의 체계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통영의 삼도수군통제영과 같이 해양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병력보다는 수군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였다. 이는 왜구의 침구와 임진왜란 중 조선 수군의 대응에서 잘 입증된 내용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상 병력만으로 제주도의 해안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만약 동시다발적으로 해안선에 상륙을 시도하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하기 어려웠다. 자칫 내륙으로 침입한 적과 해상의 적에게 협공당하여 진성이 각개격파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수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방어 작전의 융통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였다. 실제 이러한 형태로 조선전기에는 수군 전력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 적극적으로 운용되던 제주도내 수상 전력은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사라져 18세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수상 전력에 해당하는 판옥선 등이 주로 머무는 수전소는 조선 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이르면 모두 폐지가 되었다. 즉 조선정부는 방어 작전의 효율성 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제주도의 해상 방어 전력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해상 방어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육상 방어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육상 방어체계의 핵심은 침입하는 적선을 원해에서부터 감시하여 근해에서는 그 이동양상을 정확히 확인하여 방어가 필요한 지점에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봉수-연대 등의 유기적인 운용체계가 필요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육상 중심의 관방체계가 자리 잡았다. 이렇듯 조선후기 수세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한 방어 전략은 내부의 전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관방체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2016. 3. 27.)	심사일(2016. 4. 10.)	게재 확정일(2016. 4. 18.)
-------------------	-------------------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이원조, 『탐라지초본(상)』, 제주교육박물관, 2008.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박물관.

고성훈, 「1601년 제주도 역모사건의 추이와 성격」, 『사학연구』 96, 200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운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 『2012년 해안선 조사용역 결과』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 양태」, 『탐라문화』 32, 2008.

김동진,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耽羅巡歷圖研究會論叢』, 2000.

金東栓, 「朝鮮朝(16C~18C) 濟州地方 縣監의 實態分析 ; 『濟州·大靜·旌義邑誌』의 先生 案條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2, 1985.

김동진,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 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20, 2005.

김명철, 「제주도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와 실태」, 『학예지』 8, 2001.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 읍성, 진성과 봉수, 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0.

김봉옥, 「삼성·구진과 봉수대·연대」, 『耽羅巡歷圖研究會論叢』, 2000.

김상옥, 「朝鮮後期 濟州의 防禦」, 『耽羅巡歷圖研究會論叢』, 2000.

金祥玉,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 ; 牙兵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16, 1996.

김우철, 「17세기 후반 濟州 東伍軍의 編成 實態 - 『濟州東伍軍籍簿』의 분석」, 『한국사연구』 132, 2006.

김일우, 「健入浦로부터 濟州港으로의 변천」, 『제주문화재연구』 1,

2003.

- 김일우, 「조선시대 濟州島 지역의 關防施設 정비와 水山鎭의 설치」, 『제주문화재연구』 2, 2005.
- 김주식, 「朝鮮後期 海防史的 視覺에서 본 馬山の 戰略的 位相」, 『가라문화』 16, 2002.
- 김진영, 「조선초기 ‘濟州島’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국사론』 48, 2002.
- 김창환, 「DMZ의공간적범위에관한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권4호, 2007.
- 六反田豊, 「朝鮮後期濟州島漂流民の出身地詐称」,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0, 2002.
- 박용후, 「朝鮮朝 後期の 濟州島 防衛 및 異船 對處의 實際」, 『제주도연구』 4, 1987.
- 박용후, 「歷史上에서 본 濟州島의 防衛」, 『제주도』 2, 1962.
- 방상현, 「朝鮮後期 水軍統制使 研究：水軍 統制營 設置 背景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7, 1990.
-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 운용과 영장제」, 『동서사학』 6·7, 2000.
- 신명호, 「조선후기 해양 인식과 표류인 정책 - 『典客司日記』를 중심으로」, 『해양문화학』 2, 2006.
- 신효승, 「정유재란초기 조선수군의 전략 수립과 활동」, 『역사와경계』 88, 2013.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 制度와 特徵」, 『탐라문화』 24, 2004.
- 오봉근,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1998.
-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 2004.
- 오창명, 『탐라순력도탐색』,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4.
- 원정식, 「淸初 福建社會와 遷界令 實施」, 『동양사학연구』 81, 2003.
- 윤명철, 「제주도의 해양교류와 대외항로」, 『동국사학』 37, 2002.

- 이홍두, 「한국 기병의 무기와 기병 전술」, 『歷史와實學』 53, 2014.
- 전영준, 「삼별초의 항과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2015.
- 井上秀雄, 「朝鮮城郭一覽 - 江原道·全羅南北道·濟州道篇」, 『朝鮮學報』 107, 1983.
-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배 세력에 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 2, 1992
-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 2005.
- 진관훈,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빈곤과 구빈 활동」, 『탐라문화』 41, 2012.
- 최형국, 「조선초기 軍事戰術 체계와 제주戰馬」, 『軍史』 93, 2014.
- 최형국, 『조선군 기병 전술 변화와 동아시아-조선 전기를 중심으로』, 민속원, 2015.
- 한임선, 신명호, 「조선후기 海洋境界와 海禁」, 『동북아문화연구』 21, 2009.

<Abstract>

Military Defence System of Jeju Island in the Late Chosun Dynasty

Shin, Hyo-seung

Jeju Island had played the role of an intermediary in the maritime exchange process amongst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Particularly, had it been occupied by Japan, the conventional Japanese access to Chosun would have expanded to the entire south and west coasts, and the access to China also would become more convenient without having to pass through Chosun. Therefore Jeju was a region that must be secured for Chosun for its defence system. However, its nature as an island required a landing process to be accessed, so a defensive strategy had been established by installment of bases centered around the expected landing points. The strategy would have troops concentrated in the bases until they were quickly deployed when an enemy threat was observed by the surveillance system of Yeondae (beacon mounds built along shoreline) and Bongsu (beacon mounds built on high grounds).

However, the forementioned defence system had fundamental limitations. As in the case of Navy Headquarters of Three Provinces in Tongyeong, the naval force, rather than the ground troop, would have been more suited to properly counter a threat from the sea. There also were not enough ground forces to defend

the entire coast of Jeju. The small number of troops made it difficult to maneuver against multiple units landing simultaneously along the shoreline. Additionally, the bases themselves could easily be lost one by one from a pincer operation by an inwardly-invaded enemy force and its naval support. Accordingly, retention of naval power wa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position of defence of Jeju as it would allow more flexible defence strategy. As such, naval force had been built and operated separately in Jeju during the early periods of Chosun Dynasty.

Yet the naval force which had been so actively employed began to disappear in the beginning of the Late Chosun Period, and became almost non-existent by the 18th century. The number of Sujeonso, a Jeju naval base in the Chosun period that deployed naval vessels such as Panokseons, also started to decrease in the early Late Chosun Period, being completely abolished in the 18th century. In other words, the Chosun government had reduced the naval defence capability of Jeju Island, not for the defensive efficacy but for the economical and diplomatic reasons.

A more detailed ground defence was required to fill the gap in the Jeju defence system left by the loss of naval force. On this account, any approaching foreign ship was closely watched from far in the ocean by the means of Bongsu and others. In near seas, the movement pattern of the ship was accurately identified through Yeondaes, and the situation was passed along to the bases which would then deploy troops effectively to vulnerable points. This required a systematic management of Yeondaes and Bongsus. The Late Chosun Period saw establishment of such a defence system mainly focused on ground.

Key Words: Late Chosun Period, Jeju Island, defence system, Yeondae(煙臺), Bongsu(烽燧), Signal-fire, beacon mounds, marine trade, military system, Yi Hyeong-sang, Tamrasunryeokdo

K C I